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알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엡 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금요특별집회 (주제 발표와 찬양, 성찬식)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하나님의 손'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찬양, 그리고 성찬식이 진행된다. 이번 금요집회를 위해서 다섯 분의 장로들은 '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달 가량을 함께 준비해 왔다. 이번 주제 발표는 성경에 나타나는 '손'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모두 분류한 후, 다시 여러 각도로 나누어서 연구하였으며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윤성철 장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미지(image)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며(이훈 장로), '인간의 손'이라는 각도로 범죄와 타락 그리고 회개와 기도할 것에 대해 도전하게 된다(임두원 장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대한 이미지로 십자가의 구속을 전달하고(이하영 장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게 된다(노광현 장로).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에 연관된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예바다부와 충현 남성성경반, 합석된 신생의 독창 순서가 있으며, 다함께 찬송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또한 주제 발표와 찬양이 마치지 되면 위임목사의 인도로 성찬식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신 성찬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금요특별집회를 통해서 충현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예비하게 되기를 바란다.

2001년도 일꾼 선출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오는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글을 쓰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장에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던 자들의 이름을 가득히 열거하고 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에 바비, 생명을 무릎 쓰고 바울을 돕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네와 마리아, 함께 간행한 안드리스와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와 스가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와 이리소도 불로,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모하는 벼서,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등!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

에서 천국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 애쓰던 자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오는 4부 예배 후엔 2001년도 일꾼선출 후보자선정을 위하여 공동의회가 개최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문란한 성도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담을질을 치는 자들이 선정되도록 다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누가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는 경고를 내리셨다고 기록했다(눅 22:40).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눅 11:4). 그뿐만이 아니다. 주께서는 기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고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으며(눅 18:1),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눅 5:16, 22:39).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아니, 차라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남기거나 사탄하고 도망가면 된 결과를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엡 6:18).

이번 주간의 새벽기도회는 예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부활하신다는 일주일 동안의 생애를 중심으로 선포하게 된다. 바리새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생계를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되는 새벽을 되기 바란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기도와 성령을 연관시켜 기록하였고(눅 11:9-13), 그래서 그가 동일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은 일꾼 집사를 선출하는 이유도 '기도하고 말씀에 전하여 모든 것이 진리로 될'을 기쁨으로 하였을 정도로 많이(행 6:4).

지나 수요일에 메시지

여호와와 말뚝(창 19:8)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애굽병사를 죽였던 모세! 그러나 도리어 그들로부터 고발당하고 마친 광야로 도망하여 양치기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와 배신의 쓴잔을 마신 그를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으며, 적어도 40년 동안은 포기하고 살았던 일이었다.

*내가 청년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성경이라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라(창 31:2).

양을 인도하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부름 받았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았듯이!

그 인장이 주어진 십 자 개월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나왔다(창 19:1).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나는 이같이 아람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리.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목수리 날개로 너희를 들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사오나라.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 줄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창 19:3-6).

그들은 목수리칼 같이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은 목수리처럼 애굽을 공격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와 배신의 쓴잔을 마신 그를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언약을 이사라는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모할지 어떻게 노릇하셨더라!

*오직 마음을 정화하는 자는 세 천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 치며 물러갈 길을 잊어도, 덜음과 칠어도 관치지 아니하였고 경이도 미치지 아니하였도다(사 40:3).

어디 그뿐이라!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 즉,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 내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 것이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민족의 영광스러웠던 그날의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였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그러나 이러한 축복만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오직 순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는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예수를 믿든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순종이 요구되고 있다. 비단 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순종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간혹씩의 비탄과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해야 한다(골 3:15, 벧전 2:8을 보라). 예수께서 이러한 순종의 본을 철저히 보이셨다.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철저한 순종을 위해 세 번씩 기도하셨음을 기록하였고, 누가는 '참이 땅에 떨어지는 피 흘림같이' 되었다고 순종의 현장을 묘사했으며, 겠속해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제자들의 순종을 기록했다(행 12:14). 그렇다! 오직 '여호와와 말씀' 대로 다 행해야 할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최인인 것과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받아들이야 한다.

*거룩한 바위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죄의 사함은 사면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에게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대항 자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내가 만일 내 마음을 죽여 주를 신실하게 하 마나면 그 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보다 마땅히 만연한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 '누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THE RISEN CHRIST

(Luke 24:13-35)

"So they rose up that very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and found the eleven and those who were with them gathered together, saying, 'The Lord is risen indeed, and has appeared to Simon!'"

The story of the Emmaus Disciples is a historical account of one of the very best days in human history! Why? Because it was the very day Christ rose from the dead! It was the day of victory, great victory! He was the first fruit of life. There was never a day like the day of Christ's resurrection! Strangely, this great day was doubted by Jesus' disciples and believed by His enemies. Today is Easter Sunday, a day in which we celebrate the great day of Christ's resurrection. Where do you stand? Do you doubt or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alive? Before Christ died, the gospels describe Him as compassionate, empathetic, merciful, accepting, encouraging, caring, and loving toward others. But what is He life now? What are your perceptions about the risen Christ today? Let's view the risen Christ as He communicated with two of His disciples on their journey away from Jerusalem and home toward their village in Emmaus.

First, you see that Jesus walked with His disciples, "While they were talking and discussing, Jesus Himself approached and began traveling with them" (v. 15). Isn't this a nice indication of His humbleness? He didn't run up to them in His resurrected body and say, "Look, I'm Jesus—Why are you people so sad?" Instead, He peacefully approached them and walked with them. The disciples were depressed. Their heads hung low as they headed home. On the day that they should have been rejoicing, they were retreating. On the day for triumph they were trembling in defeat. On the day for

shouting and singing they were quiet and sad. How about you? On this day of Easter Sunday are you rejoicing or retreating? Are you happy or sad? Seriously, are you walking toward or away from heaven?

The resurrection did not make Jesus remote. Quite the contrary, just as He drew near and walked with His disciples, so too He walks close with you. He is humble and joins together with His brethren. Triumph has not changed His tenderness. He went with His disciples in the way, "And they approached the village where they were going, and He acted as though He were going father" (v. 28). Jesus doesn't push Himself upon others. He gave His disciples the opportunity to continue on without Him, but they urged Him to stay. How about you? Do you want Jesus to stay in your life or do you turn away opportunities for fellowship?

Christ cared about His disciples. He cares for the problems of man. He communicated, "What are these words that you are exchanging with one another as you are walking? (v. 17). In other words, He was asking them why they were so sad. He knew the answer but He wanted them to tell Him. Their problem was that they thought Jesus was dead (vs. 17-25). It is His disciples that are speaking about this terrible situation. They're concerned. They love Jesus. They love the Lord, but they believe He is dead on the cross. How about you? Often times we also are guilty of this type of thinking. We mope and dread certain circumstances as if God were dead. We fret and stew as if

God were not involved. We moan and groan as if God were not on the throne. We only pray weekly as if God were away the rest of the time. But He lives. And we ought to remember Him.

Jesus is the Christ who sets the heart of man on fire. They said to one another,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while He was speaking to us on the road, while He was explaining the Scriptures to us?" (v. 32). Christ lights the fire within our souls and makes our hearts burn with desire for real truth and real love. He explained the Bible to His disciples and taught them its meaning, "And He said to them, 'O foolish men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in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Was it not necessary for the Christ to suffer these things and to enter into His glory?' Then beginning with Moses and with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 (vs.25-27). He explained all the Scriptures to them. How their heart needed rekindling! Once they had expected great things from Christ, but now they just repeated nice things about Him. Once they expected Him to perform the greatest miracles, now they doubted His resurrection. They were slow of heart to believe. Once they were thrilled, now they were chilled. They remembered a better day. But Jesus took them to the Bible and He showed them His wounded hands and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it and gave it to them. Is your heart on fire for Christ? The disciples' life changed. They turned around. Their direction changed. They sought out

the other gathered Christians and gave them assurance of His power (vs. 33-35).

Today is Easter Sunday, and we have come together to worship and sing praises to God. Do you have a rejoicing heart or a doubting heart? Is your heart burning or are you slow to believe? Do you truly believe His Word, the Bible? Christ's resurrection is truly the best victory in human history! It is the best gift, grace, and blessing of God. What are you doing? Why are sitting? Raise up your voice and praise the Lord in this moment. He is alive! He is approaching you! He wants to walk with you and talk with you. Please open your heart and let Him set it on fire with His love.

What is the risen Christ like to you? He is the best. He is a mighty King. He is my Savior. Because He came, died, and rose again I am a child of God. I can call God my Father. I have eternal life. I am totally free from sins. Aren't you excited? The Emmaus disciples loved the Lord, but they headed for home on one of the most exciting days in all the world. They were depressed. Praise the Lord, thank you Jesus, that you are alive!

You are my master.
You always put in my heart
a burning desire for God's glory.
You changed my life.
You use me as your instrument.
Thank you Lord
for loving me and saving me. 



김성록 목사

부활하신 예수님

(눅 24:13-35)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예수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 어떤 날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날을 제자들은 의심했고 오히려 원수들은 이 날을 두려워함으로 믿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복음사들은 그 분을 다른 이들을 향해 긍휼과 동정과 자비와 수용과 격려와 돌봄과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그 세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동행하시는 예수

예수께서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라”(15절).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보아라 내가 예수다. 왜 너희들은 슬퍼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서 그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동행하셨습니다. 그 때 제자들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인 채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그 날에 그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그 날에 그들은 패배해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뻐 외치고 노래해야 할 그 날에 그들은 침묵하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부활은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함께 걸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옆에 가까이 걸으시듯 말입니다. 그 분은 겸손히 그의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승리가 주님의 부드러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저희의 가는 손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28절)” 예수께서는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어찌로 강요하지 않고서, 대신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분과의 교제의 기회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걱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17절)” 다시 말해서 그 분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17-25절). 제자들은 이 끔찍한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망하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염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님이 죽으시기라도 한 것처럼 맥없이 방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속을 끓이며 마음을 졸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님이 보좌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신음하며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놀상 거니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일 주일에 한

번쯤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열정을 베푸시는 예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불꽃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32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불사르시며,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 분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25-27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격려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때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했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에 관해서 좋았던 과거만 되돌이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때 그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했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그들의 마음은 믿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 때 그들은 흥분했었지만, 이제 그들은 냉담해져 있고, 단지 과거에 좋았던 날들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상한 손을 그들에게 내 보이시며, 떡을 떼시고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때문에 불붙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능력에 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33-35절).

부활의 주를 향하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마

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의 주로 인하여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그 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최고의 승리입니다. 부활이아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청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는 사셨습니다. 이제 그 분이 여러분께 다가오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이 야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최고이십니다. 그 분은 강한 왕이시며 구주이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그 날에 그들은 절망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도 살아 계신 주를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주는 내 삶의 주인
언제나 변함없이
내 영혼을 붙사르시는 까닭에
나로 하여금
천부의 영광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내 삶을 바꾸시고
나를 도구 삼으신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여,
나의 감사를 받아주소서.

국내외국인선교부2

복음을 기다리는 유라시아 대륙 - CIS



기도제목

CIS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색하고 낯설다. CIS란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영문약자로서 구소련 붕괴이후 독립한 약 15개 정도의 국가들의 연합체를 통틀어 말한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몰도비아, 우크라이나...10여년 전만 해도 강대국의 국민이었던 이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가끔씩 일본인이나 중국인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우리는 불쾌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CIS의 민족들도 가끔은 우리에게 같은 종류의 불쾌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CIS라고 묶어서 이야기하기엔 이들은 너무나 다른 종교, 사회 문화,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즈벳, 카자흐는 유목민족으로 전통적인 모슬렘이며 아랍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러시아, 몰도비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정교의 전통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고려인들은 한민족의 정서적 영향과 사회주의의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유럽인이며, 아랍인이며, 아시아인이며, 조선인이다. 이들간의 공통분모는 70년간 한 나라였다는 것과 그래서 모두 러시아어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러시아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국내외국인선교부의 CIS팀은 이제 만 2년이 되지 않

은 젊음 덩이다. 1999년 2명의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국가의 분들이 오셔서 지금은 100여명이 출석하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러시아권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3월18일 목자인 지하 2층에서 독립집회를 가져 이들이 충현교회 안에서 좀 더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에 가면 선교지 교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아직 잘 정돈되지 않은 어설픈품과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문화와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인다.

충현교회 목자인 지하2층에는 유라시아대륙이 숨어 있다. 모슬렘과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한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백명의 영혼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을 거쳐갔다. 공산권 선교, 무슬림 선교, 소수민족 선교, 정교 선교... 이곳은 너무나 넓고, 많은 일들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기도를 필요로 한다. 충현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났을 때 밝게 웃으며 약속을 나눔으로 유라시아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

1. CIS 교우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2. CIS독립집회와 신령한 예배가 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3. 복음을 전할, 헌신된 현지인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4. 교사, 팀장, 구역지기 복음에 바로 서서 영적인 전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CIS팀이 충현교회 유라시아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2001년 여름 단기선교단원 모집

파송국가	인원	단장	지도
몽골	15명	이종석 장로	이흥선 목사
CIS	15명	전홍필 장로	정현민 목사
아프리카	8명	권영욱 장로	차병준 목사
스리랑카	12명	임무천 장로	류병희 목사
앙골라데시	11명	김의철 장로	이수근 목사
인도	12명	이 훈 장로	송길환 목사

* 항공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팀에는 현지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대학생, 간호대학생도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충현의료인의 밤

일시: 4월 26일(목) 오후 6시~9시
장소: 만나교회
대상: 충현교회 의료인 전원(의사, 치과, 간호사, 약사, 한의사, 외대생)
기타 의료관계 종사자
취지: 충현의료인들로 하여금 선교에 비전을 갖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의료인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LMTC 지침

1. 집중 LMTC 4월 30일 (월: 1일 집중)
집중 LMTC 이수자는 2001년도 여름 단기 선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단기선교사(1년) 지원자는 정상 LMTC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2학기)
기간은 다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집중 LMTC 이수자는 단기선교에 참가할 수 있지만 1년 단기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정상 LMTC를 받아야 합니다.
4. 고·대·청에서는 2001년도 여름 단기선교 후보자를 4월8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LMTC를 받지 않은 사람은 4월 30일 집중 LM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은 각 부서별로 개별 통지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타 기관 파송 선교 사역자 파악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로 등록하도록

교회는 본 교회 성도 중 개인이나 타 선교기관의 파송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등록을 요망하고 있다. (서식, 아래 참조)

이는 이들을 파악하여 격려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선교사역 중 본교인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교적번호	이름	교구	성별	생년월일	파송기관	사역지	사역기간	연락처

선교위원회 보내는 선교사 모집(자원봉사자)

- ① 언어 특기자 (영어, 기타 제2외국어)
- ② 의전(儀典) 부분에 경험이 있는자.
- ③ 행정 지원 봉사자

(본부사역 지원, computer관련업무, 전화 수신자, LMTC 행정봉사자 기타 본부에서 현지 선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보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원'

현지에서 가서 사역하지 않지만 현지의 선교사가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 한 나 (대학부 3학년)

교회 안에서 분주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섬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한참 생각해볼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맞았던 방학 때 왜 이리도 할 일이 없었지, 2개월 반 동안 별 특별한 일없이 매일 똑같이 집에서만 보냈었죠. 그 때는 이렇게 지겨운 것보다는 차라리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바쁜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된 지금 저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바빠졌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3학년이라는 자라는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항상 분주하고 해야 할 것들이 쌓여 가는 가운데 어느 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잃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공부나 지금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일 자체에 초점을 두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부끄러운 모습 때문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 저는 나만의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미워지고 아예 무관심하기까지 하더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무심코 기도 중에 내뱉은 말은 "하나님 저 좀 사랑해주세요."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역시 나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돌아보시고 지키시며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이셨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인하고 못들은 척, 안 보이는 척 애써 다른 곳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향해 손을 내밀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상한 갈대를 격지 않고서도 친히 토기장이가 되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그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금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나봅니다. 이렇게 항상 흔들리고 쓰러지는 연약한 제 모습과 이런 추한 죄인의 모습을 미리부터 아셨음에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분은 항상 하늘의 것들로 나를 채우십니다.

내 속에 가득 담은 사랑을 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아니요! 지금도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주 조금씩만 이웃에게 나누어도 너무나 행복하도록 바뀌는 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빨간웃을 입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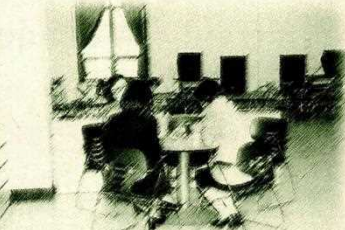
허 금 숙 (대학부 5학년)

어려부터는 ‘빨간웃’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예배때의 안내위원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편하게 빨간웃이라고 말 하지만 빨간웃을 입은 사람들은 원활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3년째 봉사하는, 연륜 깊으신 다른 집사님들에 비해 아직은 초보인 사람이지만 정다운 사람들과 포근한 분위기에서 많은 것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안내위원은 예배 30분전에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미소로 맞이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성경을 나누어 드리기에도 하고 떨어진 주보나 쓰레기를 줌은 일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절실하게 안내해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간혹 자신이 갖고 싶은 자리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에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 안내위원의 우선적인 일기에 배려해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절실이 필요하기에 열 자리, 성도분들과 가까이 앉아서이고 빈 자리가 없게 해주자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굴로 익히는 성도분들이 늘어 나고 장과 엮마를 따라오는 귀여운 아기들을 보면서 안내하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대학부 임원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이 사역에 더 많은 후배들이 함께 젊은이 예배에서 봉사했으면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실로 오시거나 빨간웃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기기 해주시면 되구요. 매주 고정적으로 앉으시는 분들을 보며 내 마음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오늘도 주간충현을 나누어 드리는 일까지 마무리 하며 안내위원의 일을 끝맺을 합니다. 교회 안에 참 반가운 모습으로 분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홀을 아시나요?

얼마 전만 해도 평일에 모임을 가지려면 시끄럽고, 담배연기 나는 곳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어 방황(?)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코이노니아홀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2교목관 1층에 마련된 코이노니아홀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좋은 테이블과 그윽한 찬양 분만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의 차가 제공됩니다.

코이노니아홀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부 이휘경 간사와의 일문일답

이렇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과 애용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이곳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토

요일과 주일에는 주로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넓고 깨끗해서 소그룹모임을 하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개인공부

나, one to one 성경공부를 할 때에도 참 좋아요. 많이 애용하고, 활용했으면

대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곳을

잘 사용한다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자가 없는 토요일과 주일에 이용하는 분들이 물건들

을 얹고나서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도 바쁘면 공간이 우리들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이 참으로 고마웠다. 이 코이노니아홀이 그리스도를 모심의 중심에 모시고 진정한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평

글·그림 : 김병현



내 입술의 찬송

내 삶을 통한 찬양

박 인 정 (가브리엘 찬양대, 초동부 교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찬양이 끊어 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주일 아침 첫 예배의 찬양대원으로 성가게 하시고 부족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문득 어린 시절 예배시간에 찬송가를 듣고 찬양할 때가 떠오른다. 그때는 찬양하면서 머리는 만생각을 하기 일췌였고 목사님 한 번, 열사님 한 번,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한 번... 이렇게 이사람 저 사람 쳐다보다가 찬송이 끝나면 가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나곤 했던 어린 시절이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찬송의 소중함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고 가사 하나하나 가슴으로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특권의 맛을 느끼게 해주셨으니 나의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내게 하소서. 회개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나의 신앙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만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입술의 찬양은 꽃을 피울 것이며 내 삶을 통하여 찬양의 그윽한 향기들이 마음껏 뿌려질 수 있으리라 소망한다.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구 옥 남 (성도, 13교구)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수차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활도 부유하고 건강도 좋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이었기에 교회에 가기를 지체하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주일 날 큰길 앞에서 인사발을 매고 있다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 '이제는 나도 교회를 다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더군요. 그후 20일쯤 지났을까,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막내딸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명도, 원인도 알아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제 울기만 했습니다. 그 때 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들었던 기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받고 나온 때는 절뚝거리며 나오느라 힘이 들었습니까? 다음 날, 또 다음 날에는 기도를 할 때 나를 데리고 가셨는지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무슨 요소를 부렸나?' 큰 병원에서 도 못 고친 병인데 아이가 이렇게

게 다 나아서 다니다니... 우리 부부는 하도 좋아서 3일 뒤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라고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우리 부부는 한 달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하지만 곧 바쁜 농사철이 되어서 한 주 교회를 못 갔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가기가 점점 싫어졌지요. 그런데 한 20일쯤 지나서 딸이 또 다시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정신차리고 매일 새벽기도회를 나가서 참으로 누워치며 얻었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딸의 다리가 차츰 나아졌습니다.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었지요.

이제 딸은 건강한 몸이 되어서 교회도 잘 나가고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들, 딸을 통해 우리 가족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고, 지체할 때 딸의 질병을 통해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2001 충현체육대회 경기종목 세부사항

1. 십자가 군/부 (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입선수를 위해 운동장에 입장한 200명(남50명, 여50명)의 몸이 그대로 선수가 된다.
- 2) 분부석에서 숫자 판을 들어 올리면, 그 숫자대로 종대번호로 대열을 갖춘다.
- 3) 출을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변호를 붙여야 한다.
- 4) 마지막 출까지 먼저 있는 팀이 이긴다.
- 5) 종대에 '출'이라고 인솔수가 모자라면 실격

2. 태극기 축/구(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2개 팀이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루어 머리부터 팀 구별을 한다. (청 색)
- 1번 선수는 축구공 5개로 경기를 하고, 여자는 배구공 5개로 경기를 한다.
- 3) 남자는 축구공만을 차야하고 여자는 모든 공을 칠 수 있다.
- 4) 남자가 고의적으로 배구공을 차게 되면, 할 때까지 자기 팀의 득점에서 1점을 뺀다.
- 5) 전반과 후반의 휴식시간은 없다.

3. 농구장전(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중2명, 고2명, 대1명으로 주전선수를 유지한다.
- 2) 후보선수는 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3)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경기 진행 요령은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 어깨동무 릴레이(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1번 선수를 제외한 9명의 선수는 명공모양의 고리를 손에끼고 줄출발선에서 선다.
- 2) 1번이 반환점을 돌아오면, 2번과 어깨동무를 하고 반환점을 돌아온다.
- 3) 10번까지 돌아오면 이긴다.
- 4) 여자선수는 앞쪽번호로 뛰든지 또는 뒤쪽번호로 뛰든지, 팀에서 결정한다.
- 5) 반환점은 왼쪽을 축으로 하여 돌아온다.(모든 릴레이 경기는 반환점을 왼쪽을 축으로하여 돌아 온다.)

5. 피리더로 썰기(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 반환점에서 배구나 피리더를 썰을 각 팀의 '피리더로 썰기 경기규칙' 1명과 마지막주자인 팀 당장을 선발해야 함.
- 1) 유자부 어린이와 소망부 어르신은 함께 2인 1조가 된다.(남자끼리, 여자끼리)
 - 2) 2인 1조 되어 배구나 피리더를 매어 한 개씩 줄과 바늘을 잡고 출발선을 지난다.
 - 3) 반환점에 있는 자기 팀의 감독에게 배구나 피리더를 벗어 주고 반환점을 돌아와, 다음 조에게 바늘을 넘겨준다.
 - 4) 피리더가 완성 될 때까지 반복하여 배구나 피리더 줄과 바늘을 넘겨준다.
 - 5) 마지막 꼭대기의 배구나 피리더 1명은 각 팀의 단장(조장이) 들고 뛰어가 완성시킨다.

6. 장미꽃줄기(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출발선과 반환점 사이에 색동우산 5개와 2가지색의 의자 5개를 설치한다.
- 2) 남 1명씩 줄이 되어 7개 줄을 이루어 출발선에서 선다.
- 3) 반환점을 돌아오면, 색동우산은 빼고, 의자는 뒤집고 반환점으로 간다.
- 4) 반환점을 돌아오면 빼지 않는 색동우산은 잡고, 의자는 바로게 놓고 돌아온다.
- 5) 다음 조에게 바늘을 넘겨주고, 7개 줄을 먼저 돌아오는 팀이 이긴다.

7. 바람 잘 날은 특대 (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운동장 중앙에 가로 세로 10미터가 되는 대형 보자기를 편다.
- 2) 선수들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방으로 보자기를 들고 선다.

3) 시작 신호와 18명이 호응을 맞춰 함께 보자기를 들었다 내리면서 바람을 잡는다.

- 4) 온 몸을 이용해 바람이 세 나가는 것을 막는다.
- 5) 1분이 지난 후 보자기에 남아 있는 바람의 양으로 승부를 낸다.

8. O X 퀴즈

- 1) 퀴즈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나 운동장에서 나온다.
- 2) 방송을 통하여 나가는 퀴즈문제의 정답을 결정한다.
- 3) 결정 후 보인의 판단에 따라 O 또는 X만이 있는 것으로 간다.
- 4) 맞출수록 다음 문제로 진출하고 못 맞출면 식사할 권다.
- 5) 실점은 남아 있는 사람이 약 100명 정도부터 지름 지름한다.

9. 응원환

- 1) 오전 1회, 오후 1회를 4개 팀이 동시 또는 각 팀별로 진행한다.
- 2) 응원 환은 찬수가 종에서 팀 자율로 결정한다.
- 3) 응원인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응원곡은 분부석에서 결정한다.
- 4) 응원환 양도는 교회에서 지급하고, 응원을 위한 도구는 팀 자율로 준비한다.

10. 공성실레이(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출발선에서 반환점을 보고 선다.
- 2) 1번 선수부터 공성실을 돌려 반환점을 돌아와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 3) 1번 마차부, 7번 마차부는 선수는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한다.
- 4) 바퀴를 먼저 돌아오는 팀이 이긴다.
- 5) 반환점을 돌 때는 항상 왼쪽을 축으로 하여 돈다.

11. 줄다리기(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줄다리기 선수 선발은 팀 자율로 결정하며 남 50명, 여 50명으로 한다.
- 2) 무사와 관계없이 선수를 선발하여 체력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 3) 시작신호와 함께 1미터 이상 끌고가기 한다.
- 4) 3초까지 지치면, 1미터 이상 끌고 가지 않았더라도 그 지점에서 승패를 결정한다.
- 5) 줄다리기와 같은 것은 고무 폭탄질같은 것은 팀에서 자율로 결정하여 준비한다.

12. 400계주(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초 중 고 대 청 교역자 장로(전) 각 남녀 1명씩 남자8명, 여자8명으로 구성한다.
- 2) 운동장 트랙을 반 바퀴씩 돈다.
- 3) 출발 순서는 발로써는 권사로 1번 바퀴, 남교역자에서 여교역자로 2번 바퀴를 편다.
- 4) 3번째 바퀴부터는 초 중 고 대 청 장로님으로 한다.
- 5) 출발선은 남자 선수가 출발하고, 릴레이선수(2000미터 지점)는 여자 선수가 출발한다.

13. 자연보호(선수선발요령과 배정기준 심판판정기준은 전과 동일)

- 1) 전 교구이 협력하여 우리가 사용한 운동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 한다.
- 2)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되, 갖고 온 쓰레기는 되가져 간다.
- 3) 담뭍 쓰레기 등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면,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거한다.
- 4) 분리수거와 자연보호 후 심판들의 상태 점검으로 1~4등까지 성적을 낸다.
- 5) 성공적인 행사는 자연보호 경기에서 성적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 초청 좌담회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마치고

윤숙희 (점사, 유년부 교사)

지난 3월 18일 유년부에서는 오랫동안 기도도 준비해 온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은혜 가운데 개최하였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져서인지 해마다 참석하시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아바들의 많이 참석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어린이 신앙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연구해 오신 세 분의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린이들의 교회생활과 학부모의 협력방안을 간결하게 강의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간의 긴밀한 연락과 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영적성장, 학교생활, 문제점들을 학부모가 정확히 파악하여 바른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참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는 강의를 들은 학부모들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조화를 이루는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였다. 특히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께 교회가방을 잘 점검하여 교회유니폼을 반드시 확인하여 성정쓰기, 말씀의

우기 등 교회숙제를 빠짐없이 체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모범적인 가정을 통하여 자녀교육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열 분의 학부모들이 유년부에 대한 부활의 말씀과 그 동안 직접심방과 전화심방으로 애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꼭 필요한 바를 배대도형성, 찬양 많이 부르기, 주일식 공부까 아닌 절의응답식 공부공부를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하기로 했다.

자녀교육의 초점은 최고가 아닌 최선인, 신앙과 예절교육에 힘쓰기로 본을 보이며 기도로 먹이는 부모 밑에서는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자녀가 없다는 부장님의 말씀과 생생한 간증을 참석하신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천하보다 귀한 자녀의 어린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모두 새로운 헌신과 다짐을 한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황근별 (소년부)

손님이 오시면 무슨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드릴까?
절그릇? 황금그릇? 아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드린다.

사람들은 모두 물을 마실 때 어떤 컵에 마시고 싶어할까?
아마 모두 깨끗한 컵에 먹고 싶을 것이다.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을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것이다.

사람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컵에 음식을 먹고 싶어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만약 더러운 그릇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용받을 수 없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사용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이름 '황근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란다.

수리 아바

박요한 (소년부)

나의 아버지는 두 분이시다.

한 분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

한 분은 보이시는 우리 아바

하나님은 나의 영을

지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아바

나의 몸을 지켜 주신다.

하나님과 아바는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아바 나를 위해

양식과 간식을 주신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 아바를 사랑한다.

나의 아버지는 두 분이시다.

친구 초청 전도잔치를 열면서

유년부

예전에 어느 한 어린이는 '내일'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날마다 바라며 살았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의 참된 구원주이시며 친구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품, 작은 천국으로 꼭 찾아오세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구요? 이 곳은 바로 하늘나라의 꿈을 키우기는 중생교회 유년부랍니다.

일 시: 2001년 5월 27일(주일)

장 소: 교육관 314호(유년부실)

진리의 샘

'시편(Psalms)'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그리고 시편은 그 종류를 주의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재난 때에 드리는 '애가', 과거에 하나님께 사행하신 일에 대해 고백하는 '감사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시', 그리고 '영의 시'와 '봉노의 시', '말라뻬 시'와 '순례자의 시' 그리고 '메시아의 시' 등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는 시편이 어떤 종류의 시인지 분별하고 읽는다면 그 의미를 분명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이 예수의 생애에 대한 면모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구요? 시편에는 예수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의 생애의 다양한 면모를 묘사할 때에는 시편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보면, 죄로 물들기 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님의 성품을 잃지 않고 시고 하나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알이시죠!

한 가지 더, 시편을 읽으실 때 정말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은 감성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마찬가지로 시편은 기도가 담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경건한 음악을 들으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다윗의 비파 소리나 하늘의 반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요, 자, 이제 시편을 읽으시고, 시편 가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시편을 읽으시지만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향한 고백, 즉 시를 한번 써 보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내일의 그리스도의 믿니

뻔뻔한 그리스도인



언뜻 속까지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뻔뻔스럽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된다. 내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내 역시 전지구히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뻔뻔스러운 사람이 됐다.

내게는 무척 귀찮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근신으로 몰아넣는 율해 존속하고 4학년이 된 아들이 있다. 학기 초마다 잦은 말쑥으로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아들은 율해도 역시 친구들을 때려 엎어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 이상 죄송하여 손이 떨어지도록 땀 뿐이다. 이젠 이웃들도 우리 가족이 교회를 잘 다닌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왜 부끄러운 일인가? 그리스도인인 나와 내 자녀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라니.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마구 발동한다. 절망감, 수치감으로 고통 속에 빠져든다.

"죄가 미한 곳에 은혜가 넘네사(롬 5:20)"

그 귀한 은혜로 살려서 내 생활, 내 가정, 내 생각에서 빠져 나온다. 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자가 아닌가. 자존심을 버리고 낮은 자가 되어 십자가를 바라본다. 피해를 입힌 친구들과 부모님께는 더욱더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테고, 내가 죄된 몸을 남보다 실감케하여 회개케하는 개구쟁이 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며, 나는 그 날을 위해 속육이 쉽임이 기도할테고...

모든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뻔뻔스럽도록 당당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박영선 기자)

